



“밝고 맑게 마음껏 달려라” 4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화근린공원 운동장에서 열린 ‘제 88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광양 고용없는 성장 10년

■광주·전남 국가산단 들여다 보니

업체수 2.7배 증가 속 근로자는 제자리 삼성광주전자·기아차도 고용효과 미흡

일자리 사정이 심각하다. 광주·전남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산업 단지가 지난 10년 동안 몸집을 3배가량 불리며 거침없는 성장을 이뤘지만 고용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기아자동차와 삼성광주전자 등 지역 대기업마저 생산라인 자동화 등

으로 종업원을 줄이거나 뽑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3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가 발표한 최근 10년간의 산업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국가산단의 고용 현황은 3만9388명으로 지난 2000년 2만1639명보다 1만7749명 늘었으나, 지역 국가산단 생산의 94%를 담당하는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은 ‘고용 정체’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여수산단에 입주한 업체 수는 267개사로 지난 2000년 12월 말 86개사에 비해 210%(181개사) 증가했다. 생산실적도 2000년 1조8359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2058억원으로 183%(3조3699억원) 신장했다. 그러

나 근로자 수는 1만3997명으로 10년 전(1만2404명)보다 고작 12.8%인 1593명이 늘었다.

광양연관 산단은 더욱 심각했다. 광양산단의 업체 수는 지난 2000년 42개사에서 지난해 말 76개사로 34개사(80.9%)가 새로 생겨났다. 생산실적도 853억원에서 1294억원으로 51.6% 성장했다. 하지만, 근로자 수는 4077명으로 지난 10년간 339명(9%) 늘었는데 그쳤다. 특히 연도별 고용 현황을 보면 지난 2004년 4258명으로 정점을 이뤘다가 2005년 4187명, 2007년 4139명, 2008년 4065명으로 되레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석유화학과 철강 중심의 자본·기술 집약적 장치산업 위주인 여수·광양산단은 초기 투자 이후 외형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뒀지만, 자동화 설비 구축 등으로 고용면에서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 주요기업들의 고용도 뒷걸음

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수는 지난 2007년 5514명으로 정점을 이뤘다가 2008년 5511명, 2009년 5341명으로 감소 추세다.

삼성광주전자도 2005년 4200여명 이던 직원이 지난해 3401명으로 4년 사이에 20%나 감소했다. 반면 매출은 2조2466억원에서 3조2046억으로 43% 성장했다. 기아차 광주공장도 2000년 5000명에서 2005년 6600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6700명 수준으로 정체 상태다.

전남발전연구원 오병기 산업·경제 연구팀장은 “여수와 광양산단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가는 자본·기술 집약적 장치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며 “자동화 설비 구축으로 성장을 추구하다보니 고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통령 직속 안보기구 만든다

이대통령 지휘관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 대통령실에 안보특보직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5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그 책임에 관해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며 “우리의 안보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 안보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알림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내일부터 접수

13일 마감...광양 24일, 광주 27·28일 실기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제55회 호남예술제가 내일부터 미술,작문 대회 참가접수를 시작합니다. 신록이 싱그러운 5월의 하늘 아래 펼쳐지는 예술잔치에 미래의 화가,작가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1. 참가자격: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2. 신청기간: 2010년 5월 6일(목) ~ 5월 13일(목)
3. 신청방법
 - 가.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나. 우편신청: 광주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
 - 다.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홍보국 (062-220-0541) / 광주일보사 광양지사 (061-792-8111)
4. 참가비: 7,000원
5. 대회일시 및 장소
 - 가. 광주 대회
 - (1)초 등부: 2010년 5월 27일(목) 13:00 ~ 16:00 / 금호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 (2)중,고등부: 2010년 5월 28일(금) 11:00 ~ 16:00 / 우치동물원(금호패밀리랜드내)
 - 나. 광양지역대회
 - (1)초 등부: 2010년 5월 24일(월) 13:00 ~ 16:00 / 광양우산근린공원
 - (2)중·고등부: 2010년 5월 24일(월) 11:00 ~ 16:00 / 광양우산근린공원
6. 결과발표: 2010년 6월 9일(수) 광주일보 및 호남예술제 홈페이지
7. 시 상: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주 최: 광주일보사
- 협 찬: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 / 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광주대학교

光州日報社

오늘 어린이날 휴무...6일자 신문 휴간 양해 바랍니다

2010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10년을 이어온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세대의 세대를 이어 달리는 감동적인 축제의 장에서 핑크리본의 광원 의미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0년 6월 20일(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광주 월드컵경기장
종목: 5km, 10km
참가비: 1만원 *아동 5천원(단체 7천원)
기입금: K-SWISS 7계산회사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수 www.pinkribbon.or.kr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222-8746
주최:
주관: AMORE PACIFIC